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왜 필요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민형배·안도걸 의원, 광주시 공동 20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눈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관(국현 광주분관)은 광주 미술계의 오래된 숙원 가운데 하나다. 당초 국현 광주분관이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 2000년 고재우 당시 광주시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청하면서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산, 부지 문제를 비롯해 장소에 관한 이견 등으로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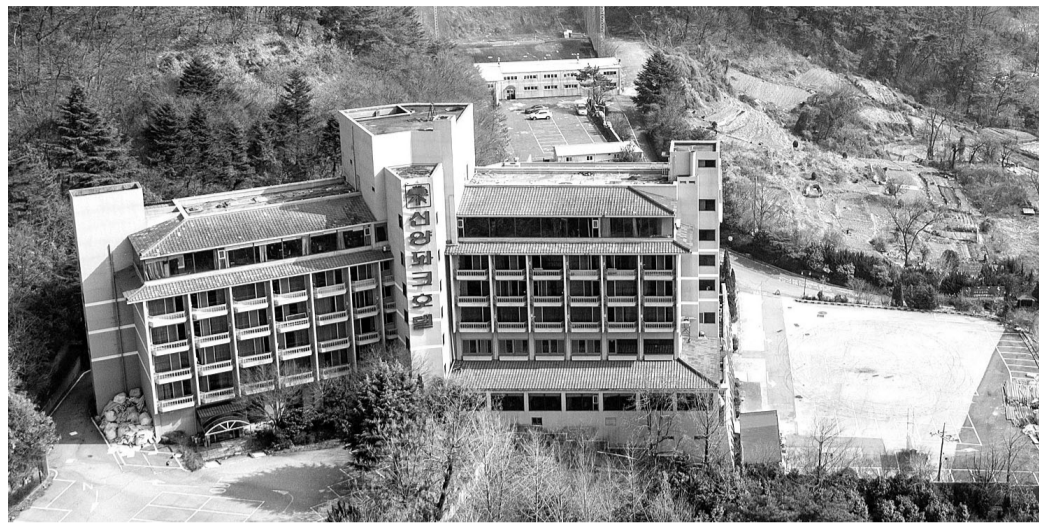
국현 광주분관이 가시화된 것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분관 건립안을 세워 유치를 위한 행보를 하면서다. 지난 2019년 휴업 상태로 남아 있던 부지는 공동주택 건축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고, 시는 부지를 369억에 매입하기에 이른다. 이를 매개로 민관정 위원회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중 광주 분관 부지로 확정된다.

그러나 정부 부처안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포함이 되지 않아 국현 광주분관 건립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지만 건립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다. 예산문제로 기재위 심사에서 용역비가 포함이 안 된 상황"이라며 "국회 토론회 개최 등 국회 차원에서 이를 담아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지원포럼)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원포럼 외에도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안도걸 의원이 함께 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현 광주관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건립 방향, 향후 전략 등에 대한 학계 논의를 매개로 유치와 그에 따른 국회 차원의 여론을 환



광주시가 매입한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용역비 문제로 건립이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장이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토론자로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해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김허경 전남대 호남학연 구원 학술연구교수, 유영태 조선대 교수가 참여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광주관의 건립 필요성,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류 지원포럼 회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왜 광주인가"의 주제의 발제문에서 "시각예술의 글로벌화, 예술산업의 중요성 증대, 문화 선진국의 국립미술관 확대정책 실시에 따라 국가문화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립미술관의 전략적 확산이 요구된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는 분관 유치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한 문화예술의 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 지역의 문화자산업 미디어아트 분야를 효율적 매개체로 활용해 도시 브랜드 가치 및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비롯해 국내외 예술가 작품 전시, 자료 아카이브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변길현 하정웅미술관장은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관장은 '광주관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발제문에서 "광주관은 레지던시 특화형 미술관으로 건립, 기존의 청주관과 대전관의 수장센터 역할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관으로 건립해야 한다"며 "이를 매개로 광주비엔날레, ACC, 국현 광주관을 통해 국제미술도시 광주라는 새로운 K컬처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현 지역관은 청주관, 대전관, 대구관(국립근대미술관)에 비취볼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권의 중심인 광주에 추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국현 지역관의 호남권 배치는 국가정책에 있어 호남 소외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국제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변변한 국현미술관을 단 하나도 설립하지 못한 정책적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제강점기 우리말 말살 수단 카드 발굴

손희하 전남대 명예교수, '조선어 금지·일어상용' 카드 확인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말과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어둠의 시대였다. 일제는 창씨개명을 비롯해 역사 왜곡 등을 통해 민족말살 정책을 폈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말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카드가 발굴돼 눈길을 끈다. 카드는 국어생활사 자료 외에도 식민 역사자료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손희하 전남대 명예교수(국어국문과)가 발굴한 카드는 일제가 초등생들에게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조선어 금지·일어상용' 카드(가로 5.4cm, 세로 9.04cm)는 가운데에 '말은 일본어로'라고 기록돼 있다. 왼쪽에는 佳會公立普通學校(가회공립보통학교)라고 쓰여 있어 일제가 감시 수단으로 카드를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 교수에 따르면 일제는 초등생들에게 카드를 나눠준 뒤, 조선어를 사용할 때마다 상대방의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했다. 남은 분량에 따라 벌을 주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 교수는 "이번 카드는 일제가 일상에서 우리말을 말살하기 위해 시행한 하나의 사례"라며 "무엇보다 순수하면서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카드를 매개로 감시, 경쟁체제를 만들었다



손희하 전남대 명예교수, 우리말 말살 '카드자료' 발굴. (전남대 제공)

는 것은 그 자체로 교묘하면서도 악랄한 수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RKO 관객비평 서포터즈 '공연예술 히치하이커' 발대식 모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비평 통해 공연예술 의미 확장시킨다

'ARKO 관객비평 서포터즈 공연예술 히치하이커' 진행

공연예술은 창·제작자와 실연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이를 향유하는 '관객'을 논외로 둘 수 없다. 예술 현장과 창작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 관객들은 작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다. 직접 뮤지컬, 연극 등을 관람하고 생산적인 비평을 통해 공연예술 의미를 확장시키는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ARKO 관객비평 서포터즈 공연예술 히치하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8월 중순부터 전국에서 펼쳐지는 음악, 전통예술, 무용, 뮤지컬 등에 대해 관객이 직접 비평을 남기고 SNS에 공유하는 관객참여 프로젝트다.

서포터즈명인 '히치하이커'는 동승자라는 뜻으로, 관객들이 함께 공연예술을 즐기고 2차 텍스트를 생성하는 동반자적 의미를 투영했다.

이들은 예술가, 언론인 등 총 30인의 공연예술 애호가들은 문예위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 예술단체의 주요 공연들을 무료로 관람하고 비평하게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전문 비평가의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며 성과공유회 참여 기회도 부여한다.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며 활동 위촉장 및 웰컴카드(특별 굿즈) 등도 제공한다. 최우수 공연예술 히치하이커로 선발되면 문예위위원장 및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예위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은 "공연예술은 창작자와 실연자뿐만 아니라 '관객'을 통해 그 의미가 완성된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관객경험을 텍스트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폭넓은 예술경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추억·낭만 깃든 '동구 예술의거리' 활성화

미술품 구매 '소소마켓'·문화 강좌 '예술살롱' 진행

한때 동구 예술의거리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이자 예술인들의 만남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도청이전 이후 외곽으로 거주지가 확대되면서 예전과 같은 활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예술인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추억과 낭만이 깃들여 있던 예술의거리를 살펴보는 예술상생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미술품 구매부터 문화강좌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이번에 기획된 프로그램 '소소마켓 part.3' (소소마켓)은 '아트광주 24' (2024 광주국제미술전람회)와 협력해 프리부 형식의 전시로 진행된다. 광주시와 문체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예술의거리 예술상생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번 소소마켓에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 전남문화협회의 작품 판매전이 예술의거리 내 위치한 광주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오픈식은 오는 16일 오후 5시)

문화강좌 예술살롱도 펼쳐진다. 오는 16일 오후 6시30분 '광주에서 예술하기 III-아트광주24 알아보는 미술시장'을 주제로 한 강좌는 윤익 감독(아트광주24 예술감독)이 강사로 나선다.

윤익 감독은 "이번 '광주에서 예술하기' 강좌는 작가와 미술시장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매개로 예술의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트광주 24와 함께하는 이번 강연은 구름표 접수 및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 내용은 '광주아트공항'과 아트광주24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